



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자국 군대에게 학살 당한지 30년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중국시민들은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SNS들은 중국 내에서 금지되어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우회IP를 이용한 VPN을 사용하거나, 자국의 SNS인 위챗이나 웨이보를 사용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던 사람들도 침묵을 강요 받는 중이며, 공산당의 권한이 축소되고 중국 내에도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날이 요원해 보인다.

작년에만 해도,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의 기원과 이념을 옹호하는, 어찌 보면 공산당에 우호적인 한 무리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중국 내에서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이들은 "시민들이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당을 지지한다면, 또한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는 얼핏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주장들이 중국 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중국 내의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10월에 있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보다 6월 4일의 천안문 사태 30주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capx.co/tiananmens-30th-anniversary-shunned-but-not-forgotten/>